

## 인슈어리움 프로토콜 by Zikto | Fast Facts

### WHO IS ZIKTO?

Zikto는 한국의 스타트업 회사로 2017년 포브스로부터 한국 10대 스타트업 회사로 선정되었다. 2014년 웨어러블 디바이스 브랜드로 시작된 Zikto는 2017년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멀티플 IoT 디바이스 통합 플랫폼인 '더 챌린지(The Challenge)'를 개발하였다. 현재 Zikto는 KB금융그룹, 교보라이프 플레닛, SK 플레닛 등 한국의 보험 및 금융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보험 산업을 변혁할 프로토콜을 개발 중이다. 인슈어리움(Insureum)은 보험(Insurance)과 이더리움(Ethereum)의 합성어로서 개발 중인 인슈어리움 프로토콜에 사용될 암호화폐이다.

### 보험 산업에 요구되는 변화

전통적이고 변화 속도가 더딘 보험사들이 어떻게 새롭고 비용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발맞출 수 있을까? 블록체인을 이용한 탈중앙화는 보험회사들이 데이터 수집 및 분석과 같은 고비용의 매뉴얼 작업을 아웃소싱하여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현재의 보수적인 보험 산업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인구 감소와 빠른 고령화, 고비용의 매뉴얼(수동) 프로세스 및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인해 보험 회사들의 성장이 정체된 것이다.

### 보험 업계의 (빈약한) 벨류 체인

신뢰도 높은 데이터 없이 새로운 상품에 대한 젊은 층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그 한계가 전적으로 보험사들의 잘못은 아니다. 전통적인 비즈니스 방식에 익숙한 많은 보험사들은 기초 통계 데이터의 부족으로 기존 및 잠재 고객에게 맞춰진 적절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개발, 광고 및 판매 한 후에는 꽤 긴 인수 절차를 거쳐 청약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인수 절차와 보상(보험금 지급) 절차 사이에서 보험사, 조사자 및 계약자가 보상이 유효하며 보험 사기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된다.

**"업계 리포트에 따르면 절차를 자동화 및 디지털화 할 경우 이러한 비용을 약 30%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가 민첩하게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보험계약자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역시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 인슈어리움 프로토콜

인슈어리움 프로토콜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탈중앙화 생태계를 창조하여 보험사, 보험계약자 및 제 3 개발자들을 연결해준다. 창조된 생태계 내에서 각 당사자들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 토큰(인슈어리움)을 교환하여 익명의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필요한 데이터를 획득하여 더 나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앱을 인슈어리움

프로토콜에 연결함으로써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자들은 개인 정보를 익명으로 공유하여 보상을 받는다.

## 인슈어리즘

생태계 안의 모든 거래를 연결해주는 암호화폐가 인슈어리즘이다. 이는 보험사, 개발자 및 이용자 간에 교환되는 암호화폐로서 주로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수요자 간에 거래된다. 사용자들은 인슈어리즘을 팔 수 있고 데이터 제공자들은 인슈어리즘을 이용해 더 많은 데이터를 살 수도 있다.

## 보험 회사

보험사들은 인슈어리즘 프로토콜을 통해 상품 개발, 판매, 지급 관리를 디지털화/자동화할 수 있다. 자체 개발하거나 외부의 개발자를 통해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잠재적) 보험 계약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 활용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상의 거래를 대조 검토하여 보험 사기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인수 및 보상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 보험계약자

인슈어리즘 프로토콜은 보험계약자들에게 각자의 생활방식에 맞는 보험 상품과 개인 정보를 공유할 인센티브를 선택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 보험사들은 익명 데이터에 대한 대가로 보험 계약자들에게 가상화폐 (인슈어리즘) 를 제공하여 공유를 장려한다. 또한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 대부분의 보상 처리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던 시간과 노력이 절약될 수 있다.

데이터는 익명화되나 보험계약자들은 개인키 (personal key) 를 이용해 보험사에

접근권을 부여하고 제공한 데이터의 검수를 허용할 수 있다.

"하루 목표인 10,000보를 걸으면  
현금을 돌려주는 보험 상품을  
상상해 보세요."

## 써드 파티/개발자

보험회사는 개발자들이 개발한 앱과 디바이스를 인슈어리즘 프로토콜에 연결하게끔 보상을 제공한다. 개발자들은 자체 제작한 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현금화할 수 있는 명확한 수익 모델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개발자들과 협력해 다양한 건강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및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및 API 개발자들은 인슈어리즘 및 인슈어리즘 프로토콜을 활용해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들의 요구에 맞춘 광범위한 신규 상품/서비스들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 더 챌린지

### (THE CHALLENGE)

인슈어리즘 프로토콜의 성공적인 시작과 유지를 위해 Zikto는 이미 상용화가 완료된 자사의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제품 및 어플리케이션 '직토 워크 (Zikto Walk)'와 '더 챌린지 (The Challenge)' 를 활용할 것이다.

2015년 Zikto는 '직토 워크 (Zikto Walk)'라는 웨어러블 기기를 런칭하였고 이는 사람들의 실제 생활 습관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보험사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Zikto Walk를 통해 얻은 경험을 활용해 Zikto팀은 다양한 헬스 앱에서 집적된 데이터를 보험 및 금융 회사에 제공하는

쪽으로 관심을 옮겼다. 데이터는 '더 챌린지 (The Challenge)' 라고 불리는 Zikto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활용된다. '더 챌린지'는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부터 API를 통해 활동을 기록하는 플랫폼으로써 보험회사에는 (잠재) 고객의 보험 상품 이용 가능성에 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더 챌린지를 통해 보험 회사는 그들만의 데이터 수집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유지할 수 있다. 더 챌린지 플랫폼을 이용한 고객 데이터 획득 및 관리 비용은 고객 당 연간 700원 가량으로,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지 않은 유사한 플랫폼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상 비용인 30억 원 (3백만달러) 대비 크게 효율적이다. 물론 플랫폼 유지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예상 비용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더 챌린지는 독자 플랫폼을 보유하지 않고 특정한 개인 건강 기록 (PHR) 을 수집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보험사들에게 특히 효율적인 옵션이 될 것이다.

## 인슈어리움 프로토콜이 가져올 보험 산업의 혁명

그렇다면, 인슈어리움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현대 보험 산업은 어떤 모습일까? 미래의 보험 상품은 다음의 네 가지 특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소액 보험 (MICRO INSURANCE)

(단기, 혹은 특정 담보 기반) 보험 계약자들은 블록체인에서 빠르게 새로운 보험 상품을 구매하고 기록할 수 있다. 이러한 즉시성은 여행, 암벽등반 및 행글라이딩 같은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젊은 층 고객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다.

### 사용 기반 보험 (UBI)

생활 습관 및 사용에 기반하여 다른 가격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이 늘 것이다. 일례로, 현재 UBI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차량에 장착된 3세대 UBI 텔레매틱스가 운전자의 운전 습관(급정거, 급격한 방향 전환)을 체크하고 안전운전을 할 경우 보상을 제공한다.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고령 운전자들도 자신의 안전한 운전 습관을 증명할 수 있으면 낮은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다.

### 리스크 방지

보험금 지급 관련 산업은 위험에 매우 취약하며 보험 사기 적발을 위해 매년 2조 원 (2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다. 이 지출은 블록체인과 웨어러블 기술 활용을 통해 큰 폭의 절감이 가능하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수집되는 데이터는 보안상 안전하고 완전히 분산되며 데이터 대부분에 대한 감시 책임이 한 당사자에게 집중되지 않는다.

### P2P 보험

전통적으로 보험 회사는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큰 인수 (underwriting)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이제는 가격 책정, 인수, 보험 사기 조사를 기다릴 필요 없이 보험 계약이 안전하게 생성되고 검토되어 보험계약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 사업본격화와 미래

Zikto 팀은 2017년부터 인슈어리움 프로토콜 ICO (Insureum Protocol ICO) 프로젝트에 힘써왔다. 2017년 SK 텔레콤, 코인플러그 등과 함께 블록체인 정부과제 시범사업에 참여했으며, 이미 약 35억 (320만 달러 상당) 의 시드 라운드와 시리즈 A 펀딩을 모금하였고 국내 최대의



카드회사 중 하나인 KB국민카드와 5년 계약을 확보하였다. 인슈어리움은 약 1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2019년 상용화 될 예정이고, 더 챌린지를 통한 시범 사업 운영은 2018년 3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변경 가능).

### 토큰 세일 세부사항

**토큰 이름:** 인슈어리움 (ISR; Insureum)  
**총 토큰 수량:** USD 30M of ISR  
**ICO 공모 수량:** USD 20M of ISR

**토큰 가격:** 1 USD 당 10 ISR  
**수용 화폐:** 이더리움 (ETH; Ethereum)  
**ICO pre-sale 시작:** 2018년 5월 30일  
(표준시 (UTC))

### 문의처

텔레그램: <https://t.me/insureu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nsureum>  
홈페이지: <http://insureum.co/>  
트위터: @insureum\_zikto  
미디어 블로그: [https://medium.com/@insureum\\_zikto](https://medium.com/@insureum_zikto)



# INSUREUM